



KBO 프로야구 9구단 창단 합의

“3개 기업 경쟁... 엔씨 승인 유보”

프로야구계의 숙원인 아홉 번째 구단 출범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총재 유영구)는 11일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 회의실에서 8개 구단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제9구단 창단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유영구 총재와 KIA 서영종 대표, SK 신영철대표, 삼성 김인 대표 등 이사 9명 전원이 참석했고 이사 8명이 아홉 번째 구단 출범을 찬성했다.

반면 장병수 롯데 사장은 프로야구의 내실을 기하자며 9구단 창단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상일 KBO 사무총장은 “기존 8개 구단 체제에서 아홉 번째 구단이 리그에 참가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 것에 의미가 크다”면서 “새로운 심사 기준을 만들어 2월 안에

이사회에서 신생 구단의 창단 자격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합 창원시를 포함한 아홉 번째 창단을 선언했던 온라인 게임·소프트웨어 기업 엔씨소프트에 우선 협상권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이상일 사무총장은 “엔씨소프트 외에 2개 기업도 창원시를 연고로 한 신생팀 창단 신청서를 냈다. 이들 3개 기업이 경쟁하며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아홉 번째 구단으로 탄생할 것이다. 신생 구단 창단의 문호가 열린 만큼 다른 기업이 창단 신청서를 더 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엔씨소프트 외에 나머지 2개 기업은 언론에 공개되는 걸 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기준에 심사 기준은 해당 기업

의 매출액과 종업원수 등 단순했다. 하지만 새로운 심사 기준에는 재정 안정성과 지속성, 야구 창단 의지 등 아홉 번째 구단을 운영할 수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9구단을 창단한 뒤 10구단 승인을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창단 신청서를 낸 엔씨소프트는 “제9구단을 허용하겠다는 결정을 환영한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창원을 연고로 하는 아홉 번째 구단 창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측은 이어 “구단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재정 증명 자료를 제출했다. 2개 기업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제9구단이 될 수 있도록 창단 관련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언급했다.



11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빌라봉 ASP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 서핑 준결승전에서 프랑스의 알리제 아노드가 경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창, 2018 동계올림픽 유치 신청서 제출

동계올림픽 심수에 나선 평창이 11일 스위스 로잔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2018년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양호 유치위원장과 강광배 스포츠 디렉터, 최민경 홍보대사 등은 이날 오후 IOC를 방문, 재클린 바렛 후보도시 담당국장에 3권 385쪽으로 구성된 '후보도시 파일'을 전달했다.

이 파일은 IOC가 요구한 17개 분야 261개 세부 항목에 대한 답변과 236건의 개최 보증 내용 등을 담고 있고, ▲동계스포츠의 아시아 지역 확산 ▲조밀한 경기장 배치를 통한 선수 중심 올림픽 구현 ▲다중 교통망을 활용한 첨단 교통 시스템 ▲두 번의 유치 경험을 통해 발전된 평창 등을 강조하고 있다.

평창은 독일 뮌헨과 프랑스 안시 등 2개 후보도시와 경쟁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평창은 비록 두 번의 유치 신청을 했다가 실패했지만, IOC에 약속한 것들을 모두 지켜냄으로써 더욱 발전된 모습을 갖추게 됐다”며 “평창 유치에 성공할 경우 아시아 지역에 동계 스포츠를 확산시키는 허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창 유치위는 내달 중순에 IOC 평가위원회의 현지 실사 작업과 5월 중순 로잔에서 IOC 전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브리핑 및 질의 응답을 앞두고 있다.

최종 개최지 선정은 7월6일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대훈·이성혜 태권도 MVP

‘고교생 태권스타’ 이대훈(한성고)과 한국 여자 태권도 선수 중 처음으로 아시안게임 2연패를 달성한 이성혜(삼성세원)가 2010년을 빛낸 최우수 태권도선수로 뽑혔다.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2010년 남녀 겨루기 부문 최우수선수에 이대훈과 이성혜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대훈은 지난해 11월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남자 63kg급에서 폭발적인 득점력을 과시하며 금메달을 차지했고, 여자 57kg급의 이성혜는 한국 여자 선수 중 최초로 아시안게임 2연패의 위업을 이뤘다.

품새 부문에서는 박문권(정호태권도장)과 서영애(전주비전대)가 각각 남녀 최우수선수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전국대회에서 가장 많은 입상자(1~3위)를 배출한 최우수선수단은 중등부의 풍생중(남자)과 장림여중(여자), 고등부의 풍생고(남자)와 서울체고(여자), 대학부의 용인대(남녀), 일남부의 영천시청(남자)과 춘천시청(여자) 등이 선정됐다. /연합뉴스

유도 간판 왕기춘 월드컵 출격

2010 광주 아시안게임 남자 유도 73kg급에서 은메달의 아쉬움을 남겼던 '유도 간판' 왕기춘(23·용인대)이 올해 첫 국제대회에서 자존심 회복을 버리고 있다.

왕기춘을 비롯한 유도 남녀 대표팀 10명(남 5명, 여 5명)은 오는 15일부터 이틀 동안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치러지는 2011 국제 유도연맹(IJF) 월드컵 마스터스 대회에 출격한다.

이번 대회는 체급별로 세계랭킹 16위 안에 드는 선수만 참가하는 왕중왕전의 성격으로 참가 선수의 실력으로 따지면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에 버금간다.

특히 우승 상금이 6000달러나 되고 세계랭킹 포인트도 400점이나 주어진다. IJF는 올림픽 우승자에게 600점,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에게는 500점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FA 규정 대폭 손질

자유계약(F.A) 제도가 손질되면서 프로야구 이적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1일 서울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대학(4년제) 졸업 선수의 FA 자격 취득 기간을 종전 9년에서 8년으로 1년 단축했다. 단 해외 진출 FA 자격은 현행대로 9년으로 유지된다.

이사회는 FA 영입 구단이 전 소속구단에 지급해야 하는 보상 금액에 대한 규정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보상선수 1명+전년도 연봉 50% 인상분의 200%' 또는 '보상선수 없이 전년도 연봉 50% 인상분의 300%'를 원소속구단에 지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50% 인상분이 없어진다.

2011시즌부터는 FA 선수를 영입할 경우 '보상선수+전년도 연봉의 200%'나 '전년도 연봉의 300%'를 전 소속구단에

대졸 선수 '9년→8년' 1년 단축

보상액도 줄어...이적 활성화 기대

지급하면 된다.

또 보상선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 보호선수 수를 18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해 이적시장 활성화를 꾀했다.

이와함께 아마야구의 주말리그 시행에 따라 8월16일에 열렸던 신인 지명회의 날짜가 9월5일로 변경됐고, 실용위원회 심의대로 12월중 합동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야구의 저변 확대와 발전을 위하여 선수의 사회봉사활동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삽입하기로 하는 등 선수들의 행동 지침도 강화된다.

이사회는 슬라이딩시 발을 높이 드는

행위, 경기중 욕설 및 침뱐는 행위, 경기장에서 반바지와 슬리퍼 착용, 유니폼 착용 후 관객들이 보는 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선수단 행동 지침을 확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끝내기 안타·홈런 후 과도한 세라모니도 금지된다.

이외에도 프로야구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사업위원회를 구성해 엠블럼 및 CI제작, 포지션별 레전드 선정, 30주년 기념 음반 제작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KBO 예산은 지난해 139억6876만7000원에서 3% 증가한 149억3971만6000원으로 확정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일본인 타격·수비코치 영입

KIA타이거즈가 일본인 타격 및 수비 코치와 계약을 맺었다.

KIA는 지난 마무리캠프에서 인스트럭터로 참가했던 히라노 겐 타격 코치(56)와 연봉 1300만엔, 다카하시 마사히로 수비 코치(47)와 1200만엔에 각각 계약했다.

히라노 겐 타격 코치는 롯데 마린스 수석

코치를 맡은 등 다년간 코치 및 2군 감독을 역임 했으며, 니혼햄 코치 시절인 2006년 팀의 일본시리즈 우승에 함께 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TV야구해설 위원으로 활동했다.

1978년 주니치에서 프로에 입문한 히라노 코치는 세이부, 롯데 등에서 선수로 활약했

으며 현역시절 1683경기에 출장해 타율 0.273을 기록했다.

수비 코치를 맡게 된 다카하시 마사히로 코치는 2000년 지바 롯데마린스에서 수비 및 주루 코치로 지도자생활을 시작했고, 라쿠텐이글스시 우승에 함께 했다. 2009년과 1982년 드래프트 4위로 다이요에 입단한 다카하시 코치는 요코하마, 지바 롯데 등에서 현역생활을 하며 1101경기에서 0.243의 타율을 남겼다. /김여울기자 wool@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을 추천합니다.

구분	소재지	면적	건물	상태	비고
근린시설/원룸	소재지	면적	건물	상태	비고
	소재지	면적	건물	상태	비고
	소재지	면적	건물	상태	비고
	소재지	면적	건물	상태	비고
	소재지	면적	건물	상태	비고
	소재지	면적	건물	상태	비고
	소재지	면적	건물	상태	비고
	소재지	면적	건물	상태	비고
	소재지	면적	건물	상태	비고
	소재지	면적	건물	상태	비고

아파트/빌라 김해호전무이사 011-684-3886 주택/재개발 김찬승이사 010-8033-0114 근린주택 정이사 010-5879-0005

부동산경매 전문가로서 11년째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에셋코리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부동산경매 전문가과정」 2011학년도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1학기(15주) 수강생모집 · 실전경매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공인중개사, 직장인, 주부, 금융권 임직원 · 상담 및 서류접수 236-3400

토지 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 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 계 : 13,500평
- 매매가 : 협의 후 결정

▷ 광주 ~ 무안 고속도로(나주 IC 입구)
▷ 광주에서 8분거리

갈집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기념 공원사거리)

금당 공인중개사

■ 감정가 이하

- 광산구 신촌동 주거지(2160평) 공시지가 5억 매도3억4천
- 화성동 소방서 부근 4천300평 342평 공시지가에 매도 9억
- 신안동 상업지 310(94) 평시가 3억천 매도 2억3천
- 동구 6차선 도로의 3차선도로로나 상업지 589평 건평은637평 공시지가 2억9천 매도 2억3천
- 주월동 대지631 평2009 양양시정적합 39억
- 화성동 6차선 도로 대지 136건평 173 대출 3억 매도 6억
- 원동 건물 광주역 앞 대지 108 건평 383평 건평 11억 8천 대출2억 5천천 9천 평 660 매도 6억천
- 북구동 부근 대지(207) 건평200 공시지가(가)에 매도5억
- 송림동 금호E+아파트 단567평 공시지가(가)에 매도5억2천
- 대안동 대지149 건평438 공시지가(가)에 매도8억7천
- 월산동 주택 대지477 333평 공시지가 5140만원 매도4300만원
- 화순군 심천리 주거지 587평 공시지가 3억4500 매도2억6천
- 금남동 가이던 대지111 건평300 2억5천 공시지가(가)에 매도5억
- 목포시 노안읍(상)실 허가주택 대지1054건평10층 2149평 건평 5796 천원 평면법(1)전환 40억
- 경북 상주시 신423599평 공(가)3억3천 매도 7억 평면1650원

■ 매도 · 교환

- 남구 신정동 영신강점한옥 집종종 840평 남향, 전월동, 사할적합, 통호인주택적합 3억5천만원
- 두암동 4차선도로 195평 교회, 병원, 학원 등 적합 평당 370만원
- 화성동 47기 6차선 도로변 주거지 480평 매도16억
- 북구 송림동 대지 147평 전월주택 적합 7900만원
- 송림동 2층 주거지 주택 대지 100평 수리해이함, 1900만원
- 화순군 동면 서성리 팔장촌 250평 경관종용 1억7500
- 남평동 교원리 버스도로점 211평 주택과공장용 1억6천8백만원
- 전월주택지, 화순 신성리 233평, 경관종용, 4천만원
- 담양군 순창간 국도점, 담1465평 가든, 공장, 주유소 등 적합 3억3천

T. 222-4994, 010-2632-5659, 011-782-6266
(동구 금남로 5가 123-6, 우리은행 4거리 1층)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뿐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 시내 전지역 상가중점

포기 할 형성이 월세가 더

큰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시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던 책임지고 최선을

을 다하겠습니다.

☎ (FAX) 223-1772 ☎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복점 옆, 대인동 소재서건대)

에셋지식센터

사무실·연구소 분양 및 임대 <R&D특구>

정부종합청사 옆(첨단)

▶ 1·2층 복층구조

▶ 전용 32평, 총 64세대

▶ 각종 시스템 냉방방기 설치

▶ 광장입중

노무사, 관세사, 기업부

설연구소, 컴퓨터개발

업, 건축설계사무소, 토

목설계사무소, 디자인사

무실, 종합건축사무실

기타 업종은 상담 즉시 입주 결정

◀ 상황리 입주중 ▶

공동중개 환영!!

010-2441-1610